

# ‘붉은 용정(龍井)’ : 1920년대 용정 사회주의 사상의 지리\*

천춘화\*\*

## 〈차 례〉

1. 시작하며
2.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종교배척운동’
3. ‘동양학원사건’과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
4. ‘5.30 폭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방향 전환
5. 맺으며

## [국문초록]

용정 3.13반일시위와 경신참변 이후 간도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1927년 용정에서 발생한 간도공산당사건은 사회주의 운동의 좌절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본고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배척운동’과 ‘동양학원사건’, 그리고 1930년의 ‘5.30 폭동’에 주목하여 용정 지역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전파 경로를 고찰하였다. 1920년대 중반 용정의 중학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종교배척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종교를 반대하고 나선 운동이었고, 이들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경로는 주로 연해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고려공산당 계열이었음을 확인하였다. 1923년 발생한 ‘동양학원사건’은 서울과 공산당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었고, 이 사건은 기존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과 전파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용정 ‘5.30 폭동’은 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의 성공적인 협력 활동이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용정은 다양한 계열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유입되었던 지역이었고 무엇보다도 중국공산당과의 협력 활동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었다. 용정의 1920년대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 이념의 시대였고, 그 시기 용정은 ‘붉은 도시’였다.

[주제어] 용정, 사회주의, 종교배척운동, 동양학원사건, 5·30폭동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HK연구교수

## 1. 시작하며

민주 조선인사회의 중심은 간도이고, 간도의 서울은 용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정작 용정의 문화 공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익숙하지 않다. 문학 작품을 비롯한 일련의 자료들을 통해 용정의 위상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일례로 박계주의 『애로역정』의 한 부분을 참조할 수 있겠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용정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영신 중학교(尹和洙와 鄭士斌이 공모해서 永新中學校를 光明會에 팔아먹기 전이다)와 동흥(東興), 대성(大成), 은진(恩眞), 명신(明信女學校), 광명(光明高等女學校)등 중등학교를 위시해서 중앙, 영신, 동흥, 동아, 해성, 명신 등 소학교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용정은 간도의 문화중심지로 한창 그 이름을 드날리던 때였다.

…(중략)…

용정은 평양이나 부산이나 대구보다 인구로나 상공업으로나 시민의 소유재산으로나 모든 점에 있어서 훨씬 뒤떨어지는 도시였지만 조선인 교육기관을 많이 가진 데 있어서는 당시의 용정은 경성 다음으로 가는 제2위의 도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앙학교가 공립이었고 은진중학교와 명신여자중학교가 캐나다 선교회 경영인 미션스쿨이었으며 해성학교가 독일인 가톨릭과 경영이었던 것 외에는 모두 조선사람들이 경영하는 학교들이었다.

그 외에도 중국인 경영의 성성(成盛)학교를 비롯하여 해관촌의 중국인 중학교와 소학교, 일고병자랑(日高丙子郎)의 경영인 광명여학교, 광명부인학교, 관림심상소학교, 조동중별원학교 등 이르는 곳마다 학교였었다. 학교 외에도 간도일보(間島日報)라고 하는 조선인 선우일(鮮于日)의 경영인 한글의 일간신문이 발행되었고 화문(和文)으로 간도신보(間島新報), 중국측으로는 민성보(民聲報社에서는 華文版 외에도 한글판을 일간으로 발행했었다)등 일간신문이 발행되어 문화도시의 면목을 잃지 않았다.<sup>1)</sup>

인용문은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1920년대의 용정에 대한 개관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부분은 월등하게 많은 학교 수이다. 서울 다음으로 가는 제 2의 교육도시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용정 지역의 교육 환경은 훌륭했다. 또한 용정은 문화도시로서도 손색이 없었는데 그 작은 지역에서 세 개의 신문이 동시에 발행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어 신문 『간도일보(間島日報)』<sup>2)</sup>와 일본어 신문 『간도신보(間島申報)』<sup>3)</sup>가 발행되고 있었고 중국어 신문 『민성보(民聲報)』<sup>4)</sup>는 중국어와 한국어 지면을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용정의 문화적인 분위기는 물론 다양한 민족 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요소이기도 하다. 짧은 인용이기는 하지만 용정이 교육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1920년대의 용정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의 도시’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전파되었던 1920년대의 ‘붉은 도시 용정’의 모습을 새롭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용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건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용정 3.13 반일시위’<sup>5)</sup>와 ‘15만원 사건’<sup>6)</sup> 그리고 익히 알려져 있는 ‘청산리

- 
- 1) 박계주, 『박계주문화전집3 : 애로역정, 처너지』, 삼영출판사, 1975, 67~68쪽.
  - 2) 『간도일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네이버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 따르면, 1910년 일본 총영사관 기관지로 창간된 『간도신보』는 일본어 16면과 부록으로 한국어 8면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었는데 1924년 선우일이 한국어로 된 부록 8면을 『간도신보』에서 분리하여 새롭게 『간도일보』로 창간하였다.(네이버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05308155&localCode=krcn>)
  - 3) 『간도신보』는 용정에서 발행하던 『동만통신(東滿通信)』과 『간도시보』를 합병하여 1921년 7월 6일부터 새롭게 출발한 일간신문이다. 총독부 보조금에 의해 발행되었던 어용신문이었고 도문, 훈춘, 회령, 연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1938년 만주신문사에 의해 매수되기 전까지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다.(김경춘·김영웅, 『일제강점기 간도 체육 및 스포츠 변천과정: 『간도신보』의 기사분석을 중심으로(1925~1938)』, 『체육과학연구』 20권4호, 체육과학연구원, 2009, 865~866쪽.)
  - 4) 1928년 2월에 창간되어 1931년 말 폐간된 『민성보』는 ‘백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했던 일간신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실질적인 기관지였고 강한 배일 색채로 하여 용정 일본 총영사관에 의해 강제 정간되었다. 『민성보』는 처음에는 중문판과 조선문판이 하나의 신문으로 발행되었다. 총 4면으로 구성된 신문에서 1~2면은 중문판, 3~4면은 조선문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8년 9월 1일부터 조선문판을 분리하여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후에는 조선 경내에도 배포하였다. 1929년 『민성보』 조선문판의 발행 부수는 약 1,000부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700~800부를 발행하고 있었던 『간도일보』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이봉우, 『『민성보』의 발간과 사회적 지향』, 『한국출판학연구』 40권1호, 한국출판학회, 2014.)

대첩'과 '봉오동전투'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920년은 북간도 독립운동사의 '최고봉'⑦을 장식한 한 해로 평가되었고, 북간도는 '한국독립운동의 메카'라는 미명을 획득하게 된다. 물론 이상의 대형 사건들은 간도 조선인들의 반일 정서를 행동으로 보여준 장거의 징표였지만 이를 위해 간도 조선인들은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1920년 10월부터 시작된 경신참변은 일본군에 의한 간도 조선인 대학살이었고, 경신참변을 겪으면서 조선인사회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무장투쟁의 현저한 퇴조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였다.

만주 지역 사회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주백, 황민호, 최봉룡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1926~1928년 시기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 대한 연구⑧) 만주총국 결성 이전부터 동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동만청년총연맹(東滿靑年總聯盟)에 대한 연구,⑨) 만주 지역 한인사회주의운동 과정에서의 종교 인식의 변화 과정⑩)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폭넓은 범위에서 1920년대 중반 간도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침과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 신주백의 연구는 청년운동 중심으로 전개된 간도 지역 사회주의 계열의 다양한 파벌 활동을 잘 개관하고 있다. 한편 황민호는 용정을 근거지로 결성된 동만청년총연맹의 결성 과정과 활동 내역을 소상히 밝혀냄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조직적 성장의 의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는 간도 지역 사회주의 운동사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이지만 정작 중요한 간도공산당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5) 윤병석, 『북간도 용정 3.13운동과 『조선독립선언서포고문』』, 『사학지』31, 단국사학회, 1998; 안장원, 『용정 <3·13> 운동에 대한 탐구』, 『동포논총』 3, 경북대학교 재외동포연구소, 1999.

6) 潘炳律, 『간도(間島) 15만원 사건의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7) 최문식, 『반일 무장 독립 투쟁의 최고봉 : 1920』, 『인문논총』,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8) 신주백, 『1926~1928년 시기 간도지역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반일독립운동론 : 민족유일당운동과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1992.

9) 황민호, 『1920년대 제만한인 사회주의운동의 동향과 동만청년총연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0) 최봉룡, 『1920~30년대 만주지역 한인사회주의운동과 종교 : 종교에 대한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최근인 2017년에야 일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간도공산당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sup>11)</sup>가 이루어지고 1920년대 재만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항일 투쟁 노선의 변화에 대한 정리도 함께 진행되면서<sup>12)</sup> 간도 지역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1920년대 전반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종교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천도교의 경우를 일례로 살피고 있는 연구도 주목된다.<sup>13)</sup> 이러한 선행 연구는 간도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를 단체별, 조직별, 사건별로 접근하고 있을 뿐 그 중심 공간이었던 용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단행했던 용정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런 용정을 ‘붉은 용정’이라 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용정에서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 거의 주목 받지 못하고 있었던 ‘종교배척운동’과 ‘동양학원사건’, 그리고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1930년의 용정 ‘5.30 폭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를 통해 고찰할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경로와 전파 과정에 더 주목할 것이다. 이는 용정이라는 공간의 형성과정에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이념이 동시에 유입되었던 1910년대와는 다른 1920년대의 ‘용정 로컬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작업이 될 것이다.

## 2.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종교배척운동’

용정의 종교배척운동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다. 최봉룡은 만주 지역 한인사회주의 운동 과정에서의 종교 인식의 변화 과

11) 최병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구역국 조직과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12) 박순섭, 『1920년대 재만한인사회주의자들의 항일투쟁 노선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13) 조규태, 『1920년대 전반 북간도의 천도교와 민족운동』, 『동학학보』 57, 동학학회, 2020.

정을 다루면서 ‘반종교운동’<sup>14)</sup>에 주목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간도에서의 ‘반종교운동’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설립되면서 만주총국의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전개된 운동이었고 종교재단 학교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운동이다. 한편 김주용은 1920년대 전반기 북간도 지역 학생운동의 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종교와 교육 분리를 주장한 학생들의 분류에 주목하면서 ‘반종교운동’에 주목한바 있다.<sup>15)</sup>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용정 지역의 ‘종교배척운동’은 일부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바는 없다. 본고는 이상의 글들에서 언급한 ‘반종교운동’을 ‘종교배척운동’이라 명명하고 이 사건이 단순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용정 지역 각 중학교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1920년대 중반을 관통했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용정에서의 종교배척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다수 학교들이 종교 단체에 의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국의 연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에 따르면 1920년대 간도지역의 대세는 사회주의 사상이었지만 사회주의 사상이 주류를 차지하기 전 용정을 주도하였던 세력들은 종교 단체였음을 ‘중학교건설운동’<sup>16)</sup>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의 경신참변은 일본군에 의한 간도 조선인 대학살이었고, 그 과정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 동네는 물론 모든 학교들이 거의 모두 잿더미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경신참변도 간도 조선인들의 교육열을 꺾지는 못했다. 곧 이어 학교 재건 운동이 시작되었고, 김태국이 말하는 ‘중학교건설운동’이란 바로 경신참변 중에 불살라졌던 옛터에 학교를 중축하는 사업이었다.

이 시기 설립된 학교들로는 1920년 2월 4일 캐나다 장로파 교회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은진중학교,<sup>17)</sup> 1921년 7월 11일 대성유교 세력이 주

14) 최봉룡, 앞의 글.

15) 김주용, 「1920년대 전반기 북간도지역 학생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16) 김태국, 「1920년대 용정의 사회 문화 환경과 중학교 설립운동」, 『승실사학』 25, 승실사학회, 2010.

17) 1920년 2월 4일 설립된 은진중학교는 “하느님의 은혜로 진리를 배운다”는 뜻으로 은진(恩眞)학교라 하였다. 은진중학교의 설립은 캐나다 장로파교회 선교사들이 용정에 와서 전개한 선교 활동과 갈라놓을 수 없다. 1913년 캐나다 장로파교회 선교사 빠카(조선이름은 박길)를 비롯한 외국인 선교

축이 되어 설립한 대성중학교,<sup>18)</sup> 1921년 10월 1일 천도교인 최익룡(崔翊龍)이 설립한 동홍중학교,<sup>19)</sup> 1921년 9월 14일 용정 예수교 장로회 중앙교회에서 광동서숙을 인계하여 새롭게 출발한 영신중학교<sup>20)</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이 종교 단체에 의해 재건되었고, 그러나 종교 재단의 학교 운영은 길게 가지 못했다.

1922년경부터 용정 지역의 각 중학교들에서 ‘종교배척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선두에 섰던 학교가 대성중학교였다. 대성유교에서 설립한 대성중학교에서는 매월 초하루에 공자제(孔子祭)를 지내는 것이 관례였다. 1922년 4월 초하룻날도 학교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자제를 준비했지만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종교와 교육 분리를 조건으로 학교 당국에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동맹휴학 단행 4일 만에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공교회가 퇴출하는 것으로 대성중학의 ‘종교배척운동’은 마무리되

사들이 용정에 들어와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제창병원(濟昌病院)을 설립하여 신도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성경서원(聖經書院)과 명신여학교를 설립하여 신도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등 각종 자선사업까지 전개했다(한생철, 『26년의 풍운변화 : 은진중학교,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연변문사자료』 6, 中國 龍井 : 龍井市機關印刷廠, 1988, 45쪽).

- 18) 대성중학교는 대성유교의 공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이다. 20년대 초기에 용정의 유지인사들인 대성유교의 석화준(石華俊)과 청림교의 임창세(任昌世)가 중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창하고 나섰고, 각지 유교, 청림교의 신도들과 지방부호 남군필(南君弼), 중국 동북의 여러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조선 각지의 4,000여명 민중들로부터 학교 창설 기금을 회사 받았다. 이렇게 모은 회사금으로 용정촌 제4구에 2층 벽돌목조건물로 된 교사를 짓고 1921년 7월 11일에 정식으로 대성중학교 개학식을 거행하였다. 학교 설립 당시 교주는 강훈(姜勳), 교무주임으로는 임봉규(林奉圭), 교원으로는 현기형 등 5명을 초빙하였다(한생철, 『혁명적 열의로 들끓던 배움터 : 대성학교』, 위의 책, 28쪽).
- 19) 1921년 4월 15일에 천도교종리원(天道敎宗理院)의 명의로 우선 동홍소학교를 창립하였고 이 소학교에 중학교 강습소를 꾸렸다. 같은 해 10월 1일에 중학교 강습소를 승격시켜 동홍중학교로 명명하고 원 소학교는 동홍중학교의 부속학교로 변경하였다. 학교경비는 주로 조선 경내와 현지 기부금, 그리고 학생들의 월사금으로 지탱해 나갔다(리종홍, 『파란곡절을 걸어온 길 : 동홍중학교』, 위의 책, 3쪽).
- 20) 영신중학교의 전신은 광동서숙이다. 1909년 가을 조선 회령 사람 윤상철이 추수하러 용정 새마을(지금의 용정역 일대)에 왔다가 그곳에 학교가 없는 형편을 보고 초가집 한 채를 사서 교사로 꾸리고 ‘광동서숙’이라 칭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윤명희(尹命熙)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생질인 김용근(金容根)을 교사로 초빙하여 아동 30여 명을 받아 들였다. 그러다 1921년 9월 14일 광동서숙을 용정 예수교 장로교 중앙교회에 이관하고 새로운 학교로 재출발하면서 학교 이름을 ‘영신학교’라고 하였다. 학제는 초등 4년, 고등과 2년으로 정하였다(리봉구, 『민족교육의 어려운 길에서 : 영신중학교』, 위의 책, 63쪽).

었다.<sup>21)</sup> 한편 동흥중학교의 경우는 동맹휴학이 아닌 교사들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학교의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인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24년 7월에 임계학을 필두로 한 교사단이 조직되었고, 8월 11일에 교사단이 설립자조합의 명의로 학교 운영권을 접수하였다.<sup>22)</sup> 1922년의 대성중학교 ‘종교배척운동’, 1924년의 동흥중학교 ‘종교배척운동’에 이어 1926년에는 은진중학교에서도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다.

은진에서의 반종교운동은 1926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4학년 성경과목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목사가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로마서 13:2)”라고 설교하자 여창빈(呂昌彬)이란 학생이 일어나서 “그렇다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권세도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니 목사는 말문이 막혀 그만 수업도 끝내지 않고 교실에서 나가버렸다. 학생들은 학교당국에 이목사의 성격과목을 거부하고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맹휴학을 단행하겠다고 하여 학교 당국에서는 부득불 성경선생을 해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연이어 1927년 3월 18일 제5회 은진중학 졸업식 때 학교당국에서는 최성희(崔成熙)라는 불량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이로 인하여 2,3학년 재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하였다. 그러나 이태준 선생을 비롯한 학교당국에서는 한사코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리하여 4월 25일 150여 명의 학생들은 “우리들은 천당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고 일제히 집단퇴학을 선포하고 대성중학교와 동흥중학교에 전학갔다.<sup>23)</sup>

간략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은진중학의 경우는 1926년 가을에 들어서야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비롯한 조직적인 ‘종교배척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은진중학은 학생들의 동맹휴학에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다수

21) 한생철, 앞의 글, 31쪽.

22) 리종홍, 앞의 글, 7쪽.

23) 김영섭, 『동맹휴학과 항일운동』, 은진중학교동문회, 『은진80년사』, 코람데오, 2002, 115쪽.

의 은진중학 학생들이 동흥과 대성으로 집단전학을 단행하는 것으로 은진중학교의 ‘종교배척운동’은 마감되었다. 1922~1926년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릴레이식으로 전개된 학생들의 ‘종교배척운동’은 사실 이유 없는 저항이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었다.

경신년 대토벌 후 온 마을에는 반일사조가 대폭적으로 끓어올랐다. 원곡에 혁명적 내용을 가철한 ‘십진가’, ‘농부해방가’와 더불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과학은 인류를 해방한다’는 노래도 마을에 유행되었으며 『빠리꿈뭉』, 『20세기 매도론(罵倒論)』과 『삼천리』, 『비판』 등 소책자가 환영받는 독물로 되고 『레닌의 이야기』와 쏘련의 빼오네르를 소개하는 서적도 학생들 가운데서 전해 졌다.<sup>24)</sup>

그때 창립되지 오래되지 않은 룡정 각 중학교들에서 일기 시작한 사회주의 새 사조가 명동 일대에 파급됨에 따라 학교를 종교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자는 여론이 분분하였다. 룡정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명동청년들도 새 사상을 선전하는 한편 학교가 반드시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학교에 대한 교회의 통제를 반대하는 명동학교 졸업생들과 군중들의 웨침소리가 날로 높아져 갔다. 1924년에는 조선의 유명한 사회주의자인 김사국이 명동에 체류하면서 수차 연단에 올라 새 사상을 선전하였고 명동학교 8기졸업생 송산우도 연해주로부터 명동일대에 와서 조선 공산당 지하활동을 벌렸다. 학교에 대한 종교의 통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더 세차게 일어났다.<sup>25)</sup>

회고록이지만 분명한 것은 용정 지역에서 사회주의 사조가 하나의 거센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시기를 보면 빠르게는 경신년 대토벌 직후이고 늦어도 1923년경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식적인 기록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1』(김준엽·김창순)에

24) 김광희, 『창동학교의 지난날을 그리며』,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연변문사자료』 5, 中國 龍井 : 龍井市機關印刷廠, 1988, 71~72쪽.

25) 리홍준, 앞의 글, 88~89쪽.

따르면 만주 지역 사회주의의 유입은 1926년 5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데에 반해 임경석의 경우는 만주 지역으로의 사회주의의 유입은 1921년 3월부터 1922년 4월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가장 일찍 조직사업을 개시한 세력은 뒷날 상해파라고 불리게 되는 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sup>26)</sup> 임경석의 이러한 주장은 『연변문사자료』의 기록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최초의 조선인 공산주의자인 리동휘(李東輝) 등은 지하 간행물인 《새벽종(晨鐘)》 잡지며 각종 소책자들을 통정 여러 중학교에 보내 왔다. 1922~1923년間に 동흥, 대성, 두 중학교 학생들 속에서 맑스주의를 연구하는 과외씨클인 《광명회》가 조직되었다. 은진중학교의 일부 학생들까지 망라한 30여명으로 구성된 《광명회》 성원들은 리주하, 리린구(李麟求) 등의 지도 밑에 밤이나 일요일을 리용하여 학습을 견지하였다.

...(중략)...

1922년에 박윤서(朴允瑞), 주청송(朱靑松)등이 쓰련 연해주로부터 통정에 와서 동흥중학교 학생들 속에서 진보적 학생들을 단합하여 《사회과학연구회》, 《친목회》를 조직하고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맑스주의사상을 학습하고 선전하였다. 시초에는 뜻을 같이하려는 10명의 학생들이 조용한 사민집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것이 불원간에 5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7)</sup>

상기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은 대체적으로 1922~1923년 사이였고 동흥중학교와 대성중학교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광명회’, ‘사회과학연구회’ 등과 같은 작은 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경로는 연해주 지역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러시아에 근접해 있는 용정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이는 어찌면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1920년대 초중반 용정 인구 구성에서 학생이

26)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4, 126~130쪽.

27) 리홍중, 앞의 글, 4~5쪽.

전체 인구의 38.8%를 차지하고 있었고<sup>28)</sup> 조선은 물론 러시아 연해주로부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용정에 와서 유학을 했다는 기록을 볼 때 용정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사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은진중학교의 경우 전교 재학생 중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온 학생이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이미 러시아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체험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학생들 속에서 서로 책을 돌려가며 보고 있었고, 독서회와 친목회 등 모임을 통해 혁명사상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고 전해진다.<sup>29)</sup> 이런 사회주의 사조의 풍미는 용정 지역 젊은이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과학적인 세계관을 주입시켰던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서 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고 “민중의 이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응당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1922~1926년 젊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용정 지역에서 확산된 ‘종교배척운동’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은진중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 재단 학교들에서 종교와 교육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독립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 당시 사회주의의 근원지였던 러시아에 근접한 용정의 지리적 위치와 1920년대 서울 다음으로 가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용정의 문화적 배경이 뒷받침되면서 용정은 사회주의 사조를 급속하게 받아들였고 약동하는 ‘젊은 용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선 1924~1925년의 연이은 자연재해는 대부분의 학교들을 경영난으로 몰아넣었고 일제에 의한 사회주의 세력의 탄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주의 분자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일본의 본격적인 탄압이 거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간도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가시화되었던 것이 간도공산당사건이었다.

28) 김태국, 앞의 글, 199쪽.

29) 한생철, 앞의 글, 47쪽.

### 3. ‘동양학원사건’과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

간도공산당사건은 1926년 9월에서 1930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용정 지역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앞선 연구사 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제1차간도공산당사건을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이고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용정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제1차간도공산당사건보다도 주목을 요하는 사건이 바로 1923년 용정에서 발생한 동양학원사건이다.

1923년 3월에 소련 연해주로부터 조선의 초기 사회주의 혁명자 김사국(金思國)이 룡정으로 왔다. 그는 방한민(方漢民), 김정기(金正琪), 리명희(李明熙) 등 인사들과 협력하여 대성중학교의 부설학교로 동양학원(東洋學園)을 꾸리고 교사 아래 층 교실 두칸을 점하고 대성중학교의 제1회 졸업생들을 위주로 70여명의 청년학생들을 모집해서 인차 개학했다. 동양학원은 연변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 혁명 이론을 기본 교수내용으로 삼아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 새 교육을 창시한 배움터였다.<sup>30)</sup>

보다시피 동양학원은 1923년 3월 김사국(金思國), 방한민(方漢旻), 김정기(金正琪), 리명희(李明熙)등이 주축이 되어 용정 대성중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학원이었다. ‘동양학원사건’이란 이 동양학원 관계자들이 1923년 7월 3~5일 용정 간도 총영사관에 의해 체포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sup>31)</sup>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학원 관계자들이 7월 8일을 기해 용정총영사관 공관에 폭탄을 투척해 건물을 파괴하고 주요 관리를 암살하여 민심이 동요되는 기회를 이용해 사회주의 선전서를 배포할 음모를 계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32)</sup>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이 ‘폭탄 투척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언급되

30) 위의 글, 32쪽.

31) 『機密 제210호 : 共產主義 鮮人の 不逞陰謀事件 檢舉에 관한 件』,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 部 鮮人 과 過激派4』, 1923년 7월 9일.

32) 한생철, 앞의 글.

고 있는 부분이다. 『연변문사자료6』(33쪽)에 따르면 용정의 일본영사관 마당에 폭탄을 매립하여 폭파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일본 측 보고서에 따르면 용정 일본 영사관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영사관과 공관, 은행 등을 폭파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sup>33)</sup>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폭탄을 투척하여 영사관을 폭파하고 관련인물을 암살하고자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일본이 처음부터 동양학원 해체를 목표로 음모를 꾸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동양학원은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사회주의자를 양성하는 첫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이다.

동양학원사건 발발 전후를 기해 동양학원 관련 기사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양학원은 사건 발생 전부터 이미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기관으로서 일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1923년 5월 25일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동양학원 학생 세 명이 연설회를 열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다가 23일부터 일 년 간 체류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sup>34)</sup> 『동아일보』는 동양학원은 ‘철학개론’, ‘서양사’, ‘철학사’, ‘윤리학’, ‘교육학’, ‘서양명사론’, ‘경영학원론’, ‘경제발달사’, ‘사회진화론’, ‘서양사회운동사’ 등 과목으로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첫 순회강연 지역인 회령에서 박원회<sup>35)</sup> 등이 체포되어 순회강연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36)</sup> 보는 바와 같이 용정 동양학원은 이미 사회주의 분자의 양성소로 인식되고 있었고, 민족자결주의와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조선 독립 음모를 기획하는 방한민 일파”로 지목되고 있었다. 또한 동양학원은 이동휘, 박진순(朴鎭淳) 일파의 고려공산당과 조선 국내 전선조

33) 위의 글.

34) 『東洋學院 生徒 三名 押送』, 『매일신보』, 1923년 5월 25일자, 제3면.

35) 박원회는 김사국의 부인이다. 1921년 7월 15일 김사국과 결혼하였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23년 초 일본에서 귀국하였고, 1923년 4월 김사국을 따라 용정으로 이주한 후 동양학원 영어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러다 1923년 7월 4일 동양학원 하계강좌 홍보를 위해 함북 회령에 머물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동양학원사건 발생 시 방한민 등과 함께 체포되었고 1923년 9월 29일 예심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여성해방운동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은 오빠 박광희와 남편 김사국으로부터 영향 받았을 것이라 추정된다(안미경, 『1920년대 박원회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176~178쪽).

36) 『동양학원순장, 의외의 경찰에 구인되는 화로 중지』, 『동아일보』 1923년 7월 15일자, 제4면.

선청년회 고려부와 연결되어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 조선 양측 모두에서 “주의화(主義化)의 근원지”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sup>37)</sup>

동양학원사건에서 김사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반면 방한민은 동양학원사건의 주모자로 지목 받아 징역 10년을 언도 받고 대구감옥에서 복역하다 1928년 6월 가출옥 한다.<sup>38)</sup> 그러나 사실과는 다르게 김사국은 서울과 공산주의그룹의 리더였고, 1923년 그는 고려공산동맹의 창립을 위한 대표자 회의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대회 결의에 따라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받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의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원동부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김사국은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고 1923년 3월 간도 용정에 와서 방한민 등과 함께 동양학원을 설립했던 것이다.<sup>39)</sup>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동양학원은 서울과 공산당원들이 용정에서 시도한 간도 조선인 혁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정치사상 훈련소였던 것이다.

한편 동양학원이 대성중학교에 설립된 것 또한 우연은 아니다. 당시 대성중학교에는 이미 마르크스주의 연구소조 ‘광명회’가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 공산주의자 이인구(李麟求)와 이주화의 지도 밑에 결성된 광명회 인원은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후에 동흥중학교와 은진중학교의 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구성원은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공공연하게 교실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공부하였다고 전해진다.<sup>40)</sup>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성중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 중에는 이미 이동휘 등이 상해에서 번역 출판한 마르크스주의 팸플렛 『새벽종』 등을 지닌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sup>41)</sup> 이처럼 대성중학교에는 이미 사회주의 사상이 급진적으로 유입되고 있었고 적극적인 공부 모임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었다. 동양학원의 설립은 이러한 학습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을 한층 가속화시켰

37) 『機密 제174호: 朝鮮內의 第三國際共產黨 宣傳部 設置에 관한 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鮮人及 過激派 4』, 1923년 06월 06일.

38) 전명혁, 「일제하 方漢旻의 언론·교육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사림』 44, 수선사학회, 2013.

39) 전명혁, 「解光 金思國의 삶과 민족해방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40) 한생철, 앞의 글, 29쪽.

41) 위의 글, 29쪽.

던 것이다.

동양학원은 결국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탄압으로 폐쇄되었지만 결코 사회주의 사조의 확산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1926년 10월 28일 조선공산당 동만구역국이 용정에서 결성되었고 동만구역국은 당원을 확보하고 하부조직을 설치하며 당세를 확장하는 데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중당 건립, 무장투쟁 준비 작업, 민립중학교설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sup>42)</sup> 조봉암(曹奉巖)의 영도 하에 용정에 조선공산당 동만구역국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산하에 9개 구(區)를 두었고 구 밑에는 16개 지부를 건립하였는바 동흥, 대성 두 중학교에 4개 지부가 있었다.<sup>43)</sup> 1927년 4월 대성중학교 내에 ‘대성중학교 청년총연맹’이 결성되었고, 4월 11일에는 이환을 책임자로 하는 ‘대성중학교 소년총회’가 결성되었다. 1927년 7월에는 조선공산당 동만구역국 산하의 학교연합지부가 대성중학교에서 결성되었으며 교장 박재하가 책임비서로 발탁되었다.<sup>44)</sup> 1927년 9월 20일에는 조선공산당 용정 각 중학교의 기층조직 책임자들과 동만구역국 책임자들이 정재운(鄭在允) 집에서 제1차 회의를 하였고 10월 2일에 제2차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그날 밤 11시경에 용정 일본총영사관 순경들의 불의의 수색에 28명이 즉석에서 체포되었다.<sup>45)</sup> 이것이 바로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이었다. 1928년 9월에 다시 제2차 간도공산당검거 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정에서만 72명이 체포되었다.

동양학원은 기존의 조직적 연결에 의한 당원 발전이라는 방식과는 달리 학교 교육이라는 직접적인 교육 형식을 통한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과 전파를 도모한 기관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양학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분자의 양성소 역할을 목 표했던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기관이기도 했다. 비록 짧은 기간 존재하였지만 그 존재 의의는 큰 영향을 미쳤다. 동양학원사건 후 김사국은 Ningjutai(寧古塔)에서 동일한 성격의 대성학원 설립을 추진했고, 용정에 조선공산당 동만

42) 최병도, 앞의 글, 252쪽.

43) 리홍중, 앞의 글, 6쪽.

44) 한생철, 앞의 글, 34쪽.

45) 위의 글, 34~35쪽.

지구가 설립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는 더욱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1차, 제2차 간도공산당사건을 겪으면서 조선공산당 동만지구는 해체되고 조직적인 활동은 더 이상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붉은 용정’의 적화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1925년 8월에는 용정시에서 선전문을 배포하여 간도 일대를 적화하려 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 이는 8월 27일 간도 용정 시내에 공산주의 선전문을 대대적으로 배포하여 용정 시내를 크게 소란케 한 CK단과 고려공산당 전권단 활동을 보도한 내용이었다.<sup>46)</sup> 1927년 4월 1일에는 해삼위에 있는 고려공산당 본부에서 간도에 그 지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유력한 당원 몇 사람을 파견하였고 활동 중이라는 내용도 보도된다.<sup>47)</sup> 한편 메이데이 행사 관련 보도도 신문 기사에서 자주 확인된다. 1927년 5월 메이데이를 기해 용정시에서는 각 사회단체연합회를 주최하여 메이데이 기념강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당국의 금지로 중지되었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에서는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교유회 형식으로 변경하여 대성학교 운동장을 집합 장소로 정하고 2일 오전 10시 경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용주사(龍珠寺)로 이동해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된다.<sup>48)</sup> 이상과 같은 일련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정의 사회주의 운동은 소규모 간헐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그러다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항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이 시작되었고 사회주의 조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력들은 모두 지하 활동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최후의 포성을 올린 것이 1930년의 ‘5.30 폭동’이었다.

46) 「CK 團員도 參加, 間島赤化計劃, 용정시에서 선전문 다수를 배포하고 간도 일대를 적화하려든 사건! 電拳團 事件 公判」, 『동아일보』, 1925년 10월 7일자.

47) 「高麗共產黨 龍井에 潛入活動, 間島 각지에 활동」, 『동아일보』, 1927년 4월 1일자.

48) 「龍井메이데이盛大 각사회단체연합주최로 間島初有의 大示威」, 『중외일보』, 1927년 5월 8일자.

#### 4. ‘5.30 폭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방향 전환

1930년의 용정 ‘5.30 폭동’<sup>49)</sup>은 ‘5.30 운동’<sup>50)</sup> 5주년을 기념하여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전개된 무장폭동이다. 용정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무장투쟁의 주요 공격대상은 일본 영사관과 동척회사, 조선인거류민회, 친일지주 등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번의 활동이 기존의 사회주의 조직의 활동과는 다르게 무장투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용정 ‘5.30 폭동’은 일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5월 30일 밤, 폭동 중심인 룡정에서는 100여명 민중이 김철, 강학제 등의 지휘하에 도끼, 몽둥이, 석유 등을 휴대하고 전기회사에 쳐들어가 보초놈을 가눕히고 배전관의 저항기 전류계 등을 짓부셔버렸다. 룡정과 두도구 시내는 삽시에 암흑세계로 변화하였다. 대불동 부근의 민중들은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그리하여 회령, 대립자, 룡정 간의 통신망이 끊어졌다. 또 한 개 대는 룡정역 천도철도의 기관고를 습격하였으나 적들의 방어가 심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 개 대는 시내에 들어가 룡정 우장거리에 있는 동점복의 철공장 일부와 곡물상 김명희 집에 불을 질렀다. 강학제 등 몇몇은 일본동양척식회사 간도출장소 사무실에 작탄 2개를 던졌는데 그중 하나가 폭발하여 사무실을 수리장으로 만들었다.<sup>51)</sup>

49) 용정 ‘5.30 폭동’에 대해서는 ‘간도봉기’, ‘간도사변’, ‘간도 5.30사건’, ‘5.30봉기’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본고는 무장투쟁을 내세운 폭동이었다는 성격을 강조하여 처음 불렀던 대로 ‘5.30 폭동’이라 부르고자 한다.

50) ‘5.30 운동’이란 1925년 5월 30일 상해에서부터 시작된 거국적인 반제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1925년 2월과 4월 상해, 청도의 일본인 방직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가혹한 처우와 부당한 해고에 반발하여 파업을 단행하였고, 5월 14일에는 상해 제12공장 노동자 2명이 해고된 데에 반발하여 노동자 5명이 직공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고 조업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중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직원이 대치하게 되고 그 과정에 파업지도자 고정홍(顧正紅)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고정홍 사망사건을 계기로 중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공장주 사이의 반목은 더욱 격화되고, 격분한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학생들까지 체포된다. 5월 30일 재판에서 시위에서 연행된 6명의 학생 중 5명의 석방이 불허되면서 학생들의 시위운동은 더욱 격화되어갔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을 역사에서 ‘5.30 운동’이라 칭한다.

51) 백민성, 『5.30 폭동』, 『유서 깊은 해란강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27쪽.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당시 친일지주의 집 19채가 불타고 철도교량 4곳이 파괴되어 기차가 한시적으로 통하지 못하였으며 전화선 10곳이 차단되어 연락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 발전소 1곳이 파괴되어 용정, 두도구 지방이 정전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고 총독부의 보조서당 5곳과 조선인거류민회 사무실 여러 곳이 잿더미가 되었다. 이러한 '5.30 폭동'은 무엇보다도 연변 지역의 당조직을 회복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공당위와 조선공산당이 합작하여 전개한 활동이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sup>52)</sup>

중국 공산당 조직이 용정에 설립된 것은 1928년 들어서이다. 1928년 2월 중공만주성임시위원회에서는 연변지구에 당조직을 건립하기 위해 주동교(周東郊)를 파견하였고, 주동교는 용정의 『민성보』를 거점으로 당조직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28년 8월에 중공동만구위를 설립하였고 『민성보』에 '황원(荒園)'이란 전문란을 만들어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sup>53)</sup> 그리고 이어 코민테른 12월 테제 발표와 함께 '1국1당 원칙'이 선포되면서 중공만주성위에서는 만주 지역 조선공산당의 중국공산당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공중앙은 1929년부터 1930년 초 사이에 관내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조선인 공산당원을 만주에 파견하였고, 각 정파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중공과의 연계를 시도하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화요파의 최용건, 홍남표, ML파의 오성륜, 마천목, 진공목, 서울상해파의 박봉, 이용 등이다.<sup>54)</sup> 한편 조선공산당 측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던 조직은 ML파였다. ML파 만주총국은 1930년 3월 가장 먼저 해산을 선언하고 만주성위와 직접 연계를 맺으면서 소수민족운동위원회를 장악하였다. 1930년 3월 만주성위 산하에 조직된 소수민족운동위원회는 재만 한인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였고, ML파는 소수민족운동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윤서의 지도아래 '붉은 5월 투쟁'을 준비하였다.<sup>55)</sup>

52) 김청순, 「간도 5.30 폭동과 중공당의 만주유격대」, 『북한학보』 13, 북한학회, 1989.

53) 양소전 외 4명 저, 김춘선·김철수·안화춘 옮김, 『중국조선족혁명투쟁사』, 연변인민출판사, 2009, 261~262쪽.

54) 신주백, 「1920~1930年 時期 間島地域 韓人 社會運動의 方向轉換에 對한 研究」, 『史學研究』47, 한국사학회, 1994, 88~89쪽.

‘붉은 5월 투쟁’은 1930년 4월 중공연변특별지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는 1930년 2월 화룡에서 설립되었고, 4월 24일 중공연변 특별지부는 5.1투쟁행동위원회를 조직하고 ‘붉은 5월 투쟁’을 결정하였으며 조선공산당원 김한봉(金漢峰)과 김평철(金平鐵) 등을 행동위원회에 편성하였다.<sup>56)</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0년 5월 1일에는 용정의 400여 명의 수공업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였고 반일시위를 진행하였다. 5월 6일에는 대성학교, 동흥학교, 은진학교 세 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휴학을 단행하고 중국공산당의 명의로 중문과 조선문 두 가지 언어의 선전문을 배포하였다.<sup>57)</sup> 이어 5월 29일에는 화룡현 삼도구의 조선족농민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켜 일제기관과 조선인거류민회 등에 불을 지르고 뼈라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5.30 폭동’의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5.30 폭동’은 한중 양국 공산당의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준 암흑기의 최후의 포성으로 남았고 동시에 조선공산당의 중국 공산당 편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계기로 평가되었다.

1930년 용정의 ‘5.30 폭동’에서 알 수 있듯이 용정 지역에 중공당 당조직이 결성된 것은 1928년 2월이었고 초기에는 『민성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조선공산당은 1~2차 간도조선공산당검거사건을 겪으면서 조직이 크게 훼손되었고 조선공산당 동만구역국은 해체의 위기에 놓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코민테른 12월테제가 발표되면서 ‘1국1당 원칙’이 공표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공산당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조직이 ML과 조선공산당이었고, ML파는 중공당의 지도하에 1930년의 용정 ‘5.30 폭동’에서 주역을 맡게 된다. 이렇게 용정은 붉게 불타올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용정은 더욱 큰 주목의 대상이 된다.

1930년 ‘5.30 폭동’이 폭발한 다음 해 나카무라 겐토(中村玄濤)는 직접 용정 지역을 시찰(1931년 1월 16일~2월 1일)하고 보고서 『間島龍井村地方を

55) 위의 글, 101~108쪽.

56) 양소전, 앞의 책, 277~278쪽.

57) 『共產黨은 撤文配布 三校生은 休校 불은선전문 다수 배포』, 『중외일보』, 1930년 5월 6일자.

視察して：對支外交の軟弱を悲しむ』(大陸之日本八社, 1931)를 제출한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용정을 중심으로 한 간도 지역 조선인들의 생활환경과 간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를 진행한다. 그의 통계에 따르면 만주 60만 조선인 중에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 40만이며 이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거개가 소작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정을 중심으로 한 간도 지역은 “불안한 간도”로 평가되고 이런 ‘불안’은 간도의 지리적 위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가 근접해 있는 간도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외교에 강경하지 못했던 일본의 입장이 이런 ‘불안한 간도’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에는 용정의 ‘5.30 폭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함께 드러난다. 사회주의 사조의 거센 유입과 용정 지역 조선인들의 강경한 배일 정서는 용정을 ‘불온’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나아가 간도는 ‘불안’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 5. 맺으며

이상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의 용정은 사회주의 이념의 시대였다. 본고는 이러한 용정의 이미지를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교배척운동’과 ‘동양학원사건’, 그리고 ‘5.30 폭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용정 지역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1922년~1926년에 발생한 ‘종교배척운동’은 대성중학교, 동흥중학교, 은진중학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용정의 ‘종교배척운동’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각 중학교를 중심으로 릴레이식으로 전개되었던 연속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용정에서 ‘종교배척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성중학교와 동흥중

58) 中村玄滿, 『間島龍井村地方を視察して：對支外交の軟弱を悲しむ』, 大陸之日本八社, 1931.

학교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광명회’, ‘사회과학연구회’ 등과 같은 공부모임이 존재했고 이는 주로 연해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고려공산당 계열을 통해 1922년경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용정에는 고려공산당 계열만이 아닌 서울과 공산당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1923년 용정에서 발생한 ‘동양학원사건’은 김사국을 필두로한 서울과 공산당의 용정 진출을 말해주는 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세포조직을 통한 당원 양성 방식과는 다른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주의 분자의 양성과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 전파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동양학원사건’에 이어 용정에는 조선공동산당 동만구역국이 설치되었고 그러나 간도공산당사건을 겪으면서 동만구역국은 해체되고 만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코민테른 12월테제가 발표되고 이를 계기로 조선공산당의 중국공산당 가입이 추진되었다. 이는 1928년 2월 용정에 결성된 중공당 당조직과 조선공산당 조직의 협력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로 드러난 것이 1930년의 용정 ‘5.30 폭동’이었다.

이처럼 1920년대 용정은 러시아와 근접한 지리적 위치와 조선인 집거 지역이었다는 특징으로 하여 연해주, 조선, 관내로부터 다양한 계열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유입되었던 지역이었고 무엇보다도 중국공산당과의 협력활동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드높은 교육열과 강한 민족 정서로 무장되어 있었던 용정의 조선인들 덕분이었다. 1920년대의 용정은 온통 ‘붉은 도시’였고, 말 그대로 사회주의 이념의 시대였던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政協延邊朝鮮族自治州委員會 文史資料委員會, 『延邊文史資料5~6,8: 教育史料全集』, 中國 龍井: 龍井市機關印刷廠, 1988.

### 2. 단행본

김 방, 『이동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역사공간, 2013.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서광일·김재홍 지음, 『북간도 민족운동의 선구자 圭巖 金躍淵先生』, 고려글방, 1997.

서대숙, 『김약연: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역사공간, 2017.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5~1945』, 아세아문화사, 1999.

은진중학교 동문회, 『恩眞 80年史: 北間島의 셋별』, 코람데오, 2002.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4.

전광하 편저, 『세월속의 룡정』, 중국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0.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中村玄濤, 『間島龍井村地方を視察して: 對支外交の軟弱を悲しむ』, 大陸之日本八社, 1931.

### 3. 논문

김승태, 『캐나다 장로회의 의료선교: 용정 제창병원을 중심으로』, 『延世醫史學』 제14권제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2011.

김주용, 『1920년대 전반 북간도지역 학생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김태국, 『1920년대 용정의 사회 문화 환경과 중학교 설립운동』, 『송실사학』 25, 송실사학회, 2010.

문백란, 『1920년대 이후 용정 주재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과 문재인 목사』, 『동방학지』 1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김창순, 『간도 5.30 폭동과 중공당의 만주유격대』, 『북한학보』 13, 북한학회, 1989.

박순섭, 『1920년대 재만한인사회주의자들의 항일투쟁 노선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潘炳律, 『간도(間島) 15만원 사건의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서광일, 『일제하 북간도지역 민족운동과 기독교(1906~1920)』,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역사공간, 2008.

신주백, 『1926~28년 시기 간도지역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반일독립운동론: 민족유일당운동과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1992.

\_\_\_\_\_, 『1920~1930年 時期 間島地域 韓人 社會運動의 方向轉換에 對한 研究』, 『史學研究』 47, 한국사학회, 1994.

안장원, 『용정 <<3·13>> 운동에 대한 탐구』, 『동포논총』 3, 경북대학교 재외동포연구소, 1999.

임종명, 『중전/해방 직후 남한에서의 간도 5.30 소환과 표상, 그리고 불안정성』, 『역사학연구』 77, 호남사학회, 2020.

- 윤병석, 『북간도 용정 3.13운동과 『조선독립선언서포고문』』, 『사학지』 31, 단국사학회, 1998.
- 장세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국 동북(만주)지역 확산과 한인 학생·민족운동 세력의 호응』, 『한국근현대사연구』 9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
- 전명혁, 『일제하 方漢旻의 언론·교육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사림』 44, 수선사학회, 2013.
- 전명혁, 『解光 金思國의 삶과 민족해방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 조규태, 『1920년대 전반 북간도의 천도교와 민족운동』, 『동학학보』 57, 동학학회, 2020.
- 최병도, 『조선공산당 민주총국 동만구역국 조직과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 최봉룡, 『1920~30년대 만주지역 한인사회주의운동과 종교 : 종교에 대한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 최문식, 『반일 무장 독립 투쟁의 최고봉 : 1920』, 『인문논총』,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황민호, 『1920년대 재만한인 사회주의운동의 동향과 동만청년총연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 Red Longjing(Yongjung) : Geography of Longjing Socialist Thought at the end of the 1920s

Qian Chunhua\*

Socialist thought started to rapidly spread in Gando region, since Longjing (Yongjung) March 13 Anti-Japanese Demonstration and Kyungsin Catastrophe. The Gando Communist Party Incident in Longjing(Yongjung) in 1927 was recorded as a massive incident heralding the frustration of socialist mov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acceptance and diffusion path of socialist thought in Longjing(Yongjung) region by paying attention to Religious Rejection Movement, Dongyang Hakwon Incident, and May 30 Riot not known well until now. The Religious Rejection Movement that started, centered on schools in Longjing(Yongjung) in the mid-1920s, was a movement opposing religion by the students affected by socialist thought. Their socialist thought acceptance path was confirmed to be the Korean Communist Party's affiliation based on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The Dongyang Hakwon Incident in 1923 was propelled by the Communist Party based in Seoul, which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propaganda and diffusion of socialist thought was promoted through school education unlike in the past. Longjing(Yongjung) May 30 Riot was an incident gaining attention that it was cooperation activity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hosun Communist Party. As seen in above, Longjing(Yongjung) in the 1920s was a region where various socialist organizations came into. Above all, Longjing(Yongjung) in the 1920s was a

---

\* Soongsil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Christianity Culture/Research Professor

region with a potential that could successfully lea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the Chinese Community Party. In the 1920s, it is said that Longjing(Yongjung) was “Red Longjing(Yongjung)” and that it was an era of socialist ideology.

**Key words**: Longjing(Yongjung), Socialism, Religious Rejection Movement, Dongyang Hakwon Incident, May 30 Riot